

거양해운 ...

창립14주년 기념식 거행

거양해운(대표이사 박정원)은 11월1일 오전 11시 본사 23층 강당에서 육상 및 해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원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치열한 해운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영업활동에 진력할 것과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기업문화의 창출, 더불어 전 임직원 모두가 자기계발에 열과 성을 다해 예측 불가능한 기업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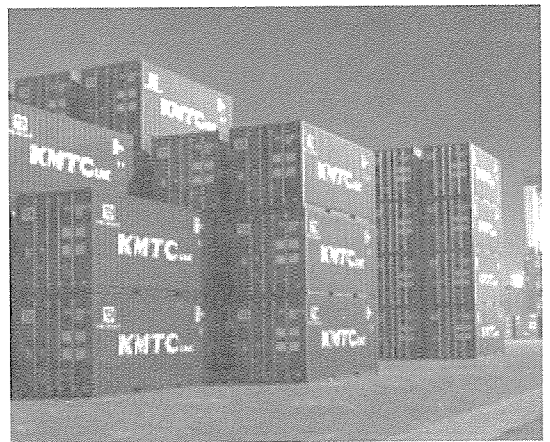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10년 근속’, ‘안전운항 무사고 5년’ 모범직원들에 대해 표창이 수여됐으며, 전 임직원이 같이 점심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올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5년에는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두자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고려해운 ...

컨테이너박스 4,000개 신규 제작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은 11월8일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 및 영업력 강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 리스 비용 절감을 통해 컨테이너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올해 컨테이너를 신규 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테이너 신규 제작은 총 4000TEU로 상하이, 다롄, 칭다오, 세코우 지역으로 나누어 오는 12월에 모두 인수할 예정에 있다.

고려해운은 2002년도에 컨테이너 1만TEU, 작년에는 6000TEU를 제작해 인수한 바 있으며 올해는 냉동 컨테이너 발주에 이어 또 다시 컨테이너를 대량 발주한 것.

고려해운 관계자는 “선사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다”라며 “신규 컨테이너를 통한 서비스는 컨테이너 노후화로 인한 고객 불만을 해소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해운...

창립 37주년 기념식 개최

동남아해운(주)이 11월 5일 서울 본사 및 국내외 지점에서 각각 회사 창립 3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임직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양길용 회장이 모범사원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에 이어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길용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환경과 용선료 및 유가 상승이라는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매출 신장 및 지속적 흑자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해온 전임직원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동남아해운은 앞으로도 원가 보전을 위한 업계 내 운임회복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체력을 튼튼히 할 것이며, 합리적 예측을 통한 선박확보 및 확충으로 선대 안정화를 이룰 것입니다. 또한,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구조 조정 등 시장 특성에 따른 전략을 실천하고, 당사 서비스의 주체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 내부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전임직원이 화합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회사와 임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수상자를 보면 모범사원에는 육상직원 양형석 대리의 12명, 해상직원 장일수 조리장의 3명이며, 25년 장기근속상은 부산지점 장원기 과장의 1명, 20년 장기근속상은 썬샤인쥬블리호 임영용 갑판장, 15년 장기근속상은 부산 지점 김철용

대리의 1명, 10년 장기근속상은 해사팀장 백수길 부장의 28명 등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표창패, 금뺨지, 행운의 열쇠 및 포상휴가 등이 수여되었다. 특히, 현 엄종식 부사장은 30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하였으며,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MR. Richard Lim Song Yong 외 3명은 10년~25년 장기근속상을 수상했다.

범주해운...

창립35주년 기념행사 거행

범주해운(사장 이상복)은 10월1일 회사 창립 35주년을 맞아 중장기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에서 범주해운은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 ‘PANCON JUMP’를 선포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 동사는 10월9일,10일 양일간 강릉의 한 해양수련원에서 서울,부산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5주년 기념을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삼선...

‘삼선로지스’로 사명변경

(주)삼선(대표 허현철)은 10월8일자로 회사명을 (주)삼선로지스(SAMSUN LOGIX)로 바꾸고 향후 세계적인 해운 종합물류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해운업계의 호황과 함께 금년 상반기에만 매출 4015억원, 당기순이익 282억원을 달성, 전년대비 3배 가까이 급성장하고 있는 삼선의 새로운 CI도입은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기업문화를 창조하고자 마련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삼선로직스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상품의 물적 이동을 의미하는 'Logistics'와 특별하고 신속한 뜻인 'Express'의 합성어로 최고의 해운물류 및 무역서비스 전문회사로 도약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계열사 삼선에이젠시(주)의 (주)삼선글로벌(SAMSUN GLOBAL)로의 변경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다이나믹한 프로세스를 갖춘 세계적인 해운종합서비스회사를 지향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허현철 대표이사는 "회사창립 만 21주년의 시점에서 해운과 무역이 통합된 사명변경과 함께 과감한 경영혁신, 신규사업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적인 해운 종합물류 회사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선은 이를 위해 해운경기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해상운송업, 특수강사업, 무역업, 보세창고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리스 선사와의 조인트벤처, 중국원료회사와의 합작 원료가공 업체를 설립 함으로써 안정적인 선복확보와 원료공급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베트남 및 필리핀 현지법인을 거점 삼아 인도를 비롯한 세계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83년 삼선해운으로 출범했던 삼선(87년 변경)은 벌크선(건화물선) 중심의 해상운송 서비스와 철강, 원재료 등의 수출입 무역서비스를 하는 국적선사로서 국내 해운업계 매출9위, 순이익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사선 6척을 포함한 200여 척의 선박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선은 지난 80년대 해운업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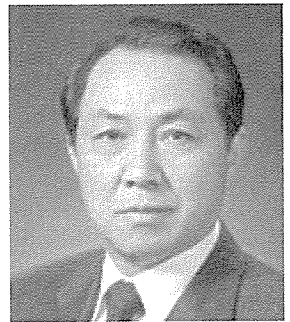
처음으로 당시 구 소련과 북한 등 공산권 국가에 진출했는가 하면 91년대 걸프전에 군수물자 수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80년말 당시 유례 없던 격주휴무제를 도입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투자 '직원1인 1PC시대'를 열었던 삼선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인 팀장 책임제도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적으로 성장엔진의 기틀을 조성해 왔다.

STX PANOCEAN ●●●

세계 5대 해운사로 도약 추진

STX컨소시엄이 11월8일 오전 11시부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강덕수 STX 회장, 이윤우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양상선 주식 매매 계약을 완료하는 클로징 세레모니(Closing Ceremony)를 가졌다.



STX PANOCEAN 강덕수 회장

STX는 지난 9월14일 범양상선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고, 10월18일 상세 실사를 종료했으며, 11월 8일 계약을 종결하게 되었으며, 이번 인수로 범양상선은 공식명칭을 'STX PANOCEAN'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날, STX와 채권은행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매매 주식 수와 매매 가격을 총 2030만 7000주(발행 주식 총 수의 67%), 4151억 5630만 8000원으로 확정하고, 주식매매 잔금 전액 납입과 주권 교부를 완결했다.

강덕수 회장은 이날 "STX가 이번 범양상선 인수

로 해운-조선-조선기자재 산업에 이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운-조선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며, "앞으로 STX와 범양상선은 한 가족으로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세계 최고의 선사는 물론, 세계 최고의 해운-조선 그룹으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STX는 범양상선에 대하여, 고객, 종업원, 주주가 모두 만족하는 최고 수준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과 신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10년에는 세계 5대 해운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범양상선은 특히 STX조선과의 시너지 효과로써,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선단 구축을 위한 선박 건조와 수리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해운사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STX는 11월8일 주주총회를 열고 범양상선의 사명을 STX PANOCEAN으로 변경하고, 강덕수 STX 회장이 STX PanOcean 대표이사 회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또 STX PANOCEAN 대표이사 부사장에 이종철 전무, 전무이사에 변용희씨, 이상문씨, 상무이사에 유천일씨를 각각 선임했다. STX는 이날 오후 범양상선의 사명을 STX PANOCEAN으로 변경, 출범식과 그룹 2010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세양선박, ...

3/4분기 영업이익 117.7% 증가

세양선박은 올 3/4분기 영업이익이 46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70%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간중 매출액은 638억7,400만원, 경상이익

은 100억8,700만원, 당기순이익 100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35%, 406.63%, 406.63% 각각 늘었다.

전기에 비해 매출액과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13.38%, 2.04%, 2.04% 각각 증가했다.

세양선박 관계자는 "올해 3척의 선박을 인도받아 선대를 대형선 위주로 확대했고 탱커쪽 상황이 좋다보니 작년에 비해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며, 그러나 6월 벌크선 상황이 크게 하락하고 유가 등 원가부담이 상존해 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븐마운틴에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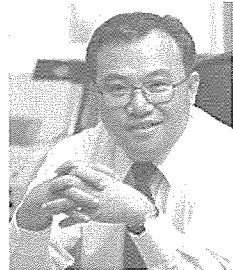
임 회장 (주)진도 대표이사

세븐마운틴그룹 임병석(林炳石) 회장과 유해기(柳海紀) 부사장이 10월21일 (주)진도 공동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주)진도는 세븐마운틴그룹 편입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임 대표이사에 현 세븐마운틴그룹 임병석 회장과 세븐마운틴그룹 유해기 부사장을 공동대표선임하는 등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진도는 세계 3대 컨테이너 제조업체로 중국에 3개 현지생산법인을 두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모피 의류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다.

지난 IMF 금융위기시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2001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해운물류기업인 세븐마운틴그룹에서 인수하여, 법정관리 졸업 및 경영정상화를 앞두고 있으며, 최근 해운경기 호



세븐마운틴그룹 임병석 회장

조에 따른 컨테이너 산업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매출 및 수익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태영상선 ...

6,150DWT급 코일선 진수식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지난 10월31일 중국 남경 소재 SHENGHUA 조선소에서 6150 DWT급 코일전용선 M.V. TY PLUM(티와이프럼)호의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으로는 전장 99,30m, 선평 17,00m, 선심 8,5m, 서비스 속도 12.1노트이며 중량 30t까지의 코일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선창구조를 가진 코일 전용선으로 설계됐다. 이 선박은 내년 3월 중 인도될 예정이다

한편, 태영상선은 지난 10월 15-17일 2박3일간 강원도 해양소년단 수련원에서 전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나가자, 새출발 50년' 슬로건 하



나가자! 새출발
태영상선(주) 임.직원 워크샵 2004.

에, 야간 산악 훈련, 래프팅 및 팀별 주제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태영상선은 "임직원들의 체력 테스트와 발표를 통해 직원간 단합 및 신지식을 공유 하는 계기가 됐다"며, "직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하나된 마인드를 형성,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해운 ...

3/4분기 영업이익 사상최대 시현

한진해운이 금년 3/4분기 정기선과 벌크부문의 강세에 힘입어 254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분기 단위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한진해운은 11월9일 공시를 통해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보다는 10%, 2분기보다는 1.2% 증가한 1억 6063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7% 증가한 254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경상이익도 비록 전년보다 1.2% 감소했지만 2분기보다는 14.5% 증가한 2400억원을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기보다 16.6% 증가한 1723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크부문 및 기타 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34.4% 증가한 2267억원을 달성했으며 컨테이너 부문도 6.2% 증가한 1조 3396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러한 실적 개선에 힘입어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말 450%에서 3분기 307.9%로 낮아졌고 특히 순부채비율은 295%에서 153%로 감소해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적개선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정기선 부문의 운임회복과 중국 특수가 지속되었



기자회견중인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

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국 및 아시아 물량의 수송량 증대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으며 향

로 합리화

등 지속적인 비용구조 개선 노력 및 벌크 부문의 수익성이 향상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매출 6조원에 영업이익 7500억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정원 한진해운 사장은 11월9일과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수익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미래를 대비

한진해운 3/4분기 매출 및 이익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3/4분기	2003년 3/4분기
매출액	16,063	14,601
매출원가	12,898	12,031
매출총이익	3,165	2,570
판매관리비	621	578
영업이익	2,544	1,992
영업외이익(손실)	(144)	438
외화환산이익(손실)	53	727
법인세비용	677	709
순이익	1,723	1,721

한 안정적인 사업체제를 구축해 한진해운을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은 미서안 롱비치터미널의 적체 현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지연 보완 및 미 서북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개 서비스 노선을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10월27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미서안-아시아-유럽을 오가는 팬들럼서비스(PDE : Pendulum Express Service) 중에서, 현재 미서안의 롱비치, 오클랜드 기항하던 것을 밴쿠버, 시애틀, 포틀랜드로 기항 항구를 변경하고 5500TEU급 포스트 파나마스 선박 12척을 대체 투입한다.

이를 대신, 기존의 노선 중 남중국에서 미서북부의 시애틀 등을 오가던 서비스(PNW : Pacific North West Express Service)에 투입된 4000TEU급 선박 5척을 롱비치, 오클랜드에 기항토록 바꿀 예정이다.

5500TEU급 대형선박의 기항지가 바뀐에 따라 현재 롱비치항을 통해 운송되던 미 내륙행 화물의 상당 물량을 항만 적체가 없는 시애틀항을 통해 운송, 운송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팬들럼서비스(PDS : Pacific Southwest (pendulum) Express Service)노선인 아시아-유럽 항로는 미서안의 롱비치와 오클랜드 기항을 유지하는 대신, 롱비치항 적체에서 오는 스케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는 항로 중 다른 노선과 중복 기항되는 펠렉스토우와 콜롬보항이 제외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서안을 기항하는 3개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미서안 롱비치터미널 적체현상으로 기인한 서비스 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 미 서북부 지역에 대형선박이 기항함에 따라 이 지역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카오슝터미널 사용 5년 연장

현대상선(hmm21.com, 사장 노정익)이 대만 카오슝의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5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상선은 10월12일 대만 카오슝 현대터미널의 사용권을 5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계약을 연장한 카오슝 전용터미널은 지난 1996년 3월 개장, 운영돼 온 것으로 2005년 3월 계약기간 9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대만 교통부 카오슝 항무국과 협상을 통해 2010년 3월까지 5년간 추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현대상선측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카오슝 현대터미널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컨테이너가 카오슝으로 집중되는 등 동남아시아의 환적의 중심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고 ▲지난 9년간 카오슝항과 쌍

아온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렴한 요율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또 카오슝 현대터미널은 올 한해 동안 총 870척의 선박이 기항해 2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에 비해 기항선박은 8%, 처리량은 17%가 늘어나는 등 호황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오슝항은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면에서 부산에 이어 세계 6위의 항만으로 대만의 자체화물보다 주변 동남아국가의 화물이 모이는 환적센터로 지난해 연간 처리량이 880만TEU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480만TEU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LG투자증권은 최근 현대상선의 올 3/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G증권은 3/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 3455억원과 185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30.8%, 56.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LG증권은 물동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컨테이너선 공급량 증가율은 둔화됨에 따라 내년까지 세계 컨테이너 해운업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내년과 올해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8%, 10.3%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경상이익 추정치도 18.9%, 12.7% 각각 증가했다.

LG증권은 현대상선의 경우 그동안 비수익성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성과에 다가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유동성 확보로 재무 안전성은 향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